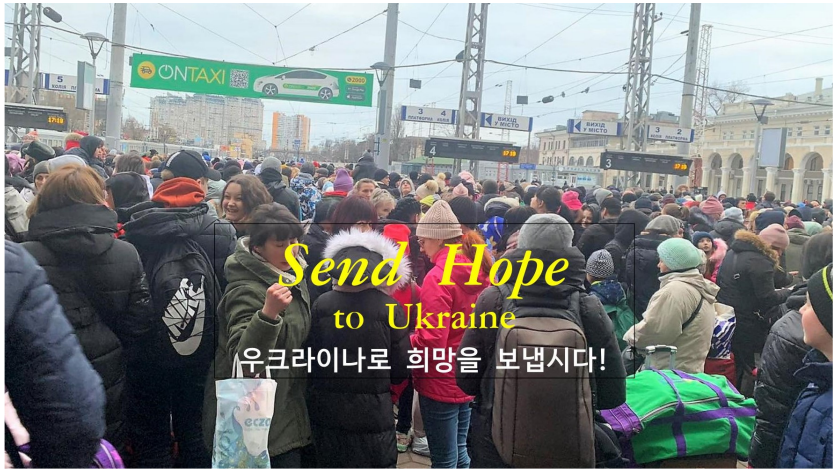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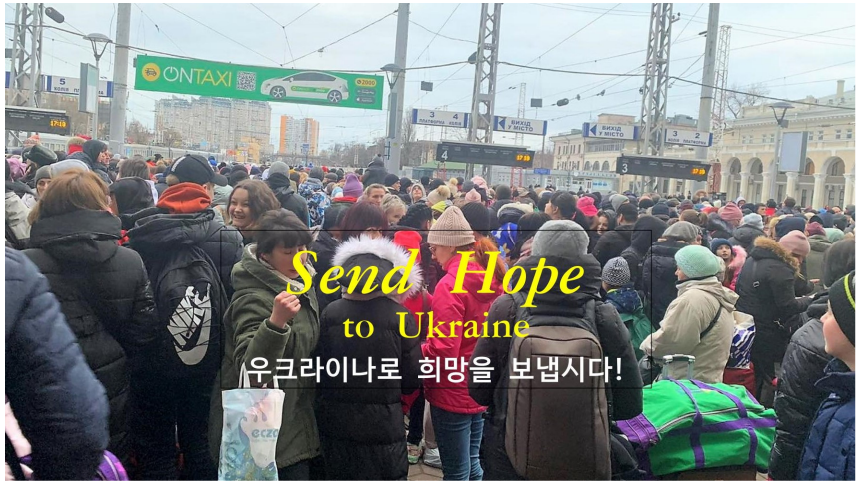


우크라이나로 희망을 보냅시다!
침례교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서 확대되는 전쟁에서 탈출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가족들에게 도움과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100% 비상용품, 물, 의복, 거처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헌금은 아래의 선교사들과 단체를 통해 어려움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돕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1)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들을 돕고 있는 **이호선 선교사**
(총회 파송 선교사)
2)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는 **정광섭 선교사**
(유럽 한인 침례회 요청) -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 교회, 신학교 사역을 하던 정광섭 선교사는 피난 중에 국경 근처의 심각한 난민들의 상황을 보고 우즈고르드 (우크라인와 헝가리 국경)에서 머물며 현지 침례교 목사님들 8명과 함께 난민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현지 침례교 목사님들 교회에서 난민들의 숙식을 제공하는데 작은 교회는 70-80명, 큰 교회는 200명 정도의 난민을 매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숙식과 생필품들을 제공해 주는 귀한 일을 위해 많은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고 있는 **Send Relief**와 IMB



Send Hope to Ukraine!
Baptist missionaries and local church leaders are actively helping Ukrainians who are escaping from escalating wars in Ukraine and who are trying to find refugee in neighboring countries. We want to raise donations to help the suffering Ukrainian families and spread the love of Christ. Your donation will 100% used to provide emergency supplies, water, clothing, shelter, and to show Christ's love in a practical way.

Your donations will be used to help Ukrainians in need through the missionaries and organizations listed below.
1) Missionary **Hoseon Lee** who is helping local people in Ukraine (missionary sent to our Council of Korean SBC)
2) Missionary **Kwang-seop Jeong** helping Ukrainian refugees (requested by Korean Baptists in Europe) / Missionary Jeong who worked at a local church and seminary in Ukraine, saw the serious refugee situation near the border while was evacuating, stayed in Uzgord (the border between Ukraine and Hungary) and started refugee ministry with eight local Baptist pastors. Every day, the local Baptist pastors' churches provide lodging for refugees. Small churches serve 70-80 refugees and large churches serve about 200 refugees every day. A lot of support is needed to provide them with lodging and food and daily necessities.
3) **Send Relief** and IMB working with Ukrainian refugees